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WELCOME
WORSHIP
DISCIPLESHIP

[Matthew 11:28-30]

주일예배 및 모임안내

주일1부예배	본당	9:00 am
주일2부예배	본당 & 라이브	11:00 am
Youth	아가페홀	11:00 am
유초등부	아가페홀	11:00 am
영유치부	본당 지하	11:00 am

화요소망학교	아가페홀	11:00 am
수요대학/기도회	본당	8:00 pm
새벽예배 (화-토)	본당	6:00 am
청년부예배 (토)	아가페홀	12:30 pm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성직 목사	은퇴장로	김대희 배상진 임병갑 장기림 백근조
방송/청년	오정훈 목사		이덕홍 이창진 윤순화 오귀록
소망학교	이신웅 전도사	찬양인도	황규식
중고등부	문강한 전도사	지휘자/서무	박은실
유초등부	청빙중	반주자	노윤실사모(1부, 새벽) 김은화 이화니(2부)
영유치부	김성은 사모	번역/통역	김예람 이화니 송명신
시무장로	백형수 윤순기	방송	조준한 Daniel Sewell

열방을 섬기는 이들

태 국	배중원	요 르 단	설총호/전경원
중 국	이주애	도미니카	이광호
케냐	이영규	아파치인디안	강원용
칠레	황신재	키르키즈스탄	바나바/다비다
모로코	김영목		



세인트루이스 한인소망교회

Korean Hope Presbyterian Church of St. Louis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Church (314) 275-2661 Agape Hall (314) 786-5018

Email HopeSTL@gmail.com www.HopeSTL.org



4.2.2023

주와 동행하는 인생 2.

1부 9 AM 2부 11:00 AM

LIVE

종려주일에배

PALM SUNDAY WORSHIP

경배와 찬양	찬양팀 (15분 전부터 시작됩니다)
* 기원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성서교독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Palm Sunday
참회의 기도	이사야 Isaiah 55:6-7
찬송	찬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다같이
기도	윤순화 장로
광고	인도자 / 김성직 목사
봉헌 & 봉헌찬송	찬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다같이
봉헌기도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성경봉독	로마서 Romans 6:1-14, NT p 246
말씀	주와 동행하는 인생 2. / 김성직 목사
Sermon	The Life with the Lord 2.
*결단의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 다같이
* 축도	김성직 목사

* 일어서서 Please stand up

어지고 있는 예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짊어지신 우리의 죄는 다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의 형벌인 죽음에 매여 계실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살리셨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2:24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무죄 증명’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지만,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으므로 이제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 무죄하심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증명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16이 이를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육신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셨던 예수님은 영(성령)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의롭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분의 의로우심, 죄 없으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마가복음 9:31).

아무튼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무죄를 증명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칭의 ()’라고 합니다.

정리해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칭의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죽음을 이겨내셨다는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제 그 죄가 다 사함 받았음을 하나님께서 증명해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죄가 남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이 점은 ‘하늘에 오르심’에 가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성경으로 풀어난 사도신경 (15)

수요대학에서 나누었던 “성경으로 풀어난 사도신경 (이운연 지음)”의 내용들을 공유합니다. 늘 내 안에 있는 신앙을 점검하고, 또 맡겨진 모든 곳을 바르게 세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 12 과 예수님의 부활 [로마서 4:25]

1.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이런 질문에서 시작해 봅시다. 성경에 예수님 이전에는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었습니까? 예수님 이후에는 없었습니까?

열왕기, 즉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 그 하편 13:20~21을 보면 이런 특별한 기적이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른 사람의 시체를 던져 넣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 모양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동굴 무덤에 시체를 던져 넣자 시체가 그 선지자의 뼈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 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왕하 13:21]"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나사로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는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까지 이미 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도 다시 살리셨습니다(요한복음 11장). 이런

사람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

첫 열매란 말 그대로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햇별이 짙한 가을날, 사과밭에 빨간 사과가 하나 보이면 사과를 딸 계절이 시작된 겁니다. 다른 사과들도 점점 빨갱게 익어 가면 사과를 따 들이는 농부의 손길이 곧 바빠집니다. 첫 열매는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고전 15:20, 23). 예수님 이전의 부활은 진정한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다릅니다. 그들의 부활은 단순히 ‘생명의 연장’입니다. 결국 다시 죽었으니, 죽음을 이긴 부활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몸이 됩니다, 즉 죽음을 이겨버린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신 부활’입니다.

나사로는 분명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때, 죽음은 한동안 저만치 물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명 살아있지 않습니다. 다시 죽었습니다. 현재까지 예수님만 온전히 부활하셨습니다.

2.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칭의입니다

예수님은 왜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치욕의 십자가에서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죽어야 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처럼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무덤에 묶여 계시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덤에 머물러 계신 예수’는 “죄를 이기지 못한 예수, 여전히 죄를 짊

성시교독

교독문 129번 사순절 Lent (6)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끄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주와 동행하는 인생(2) 롬 6:1-14

< 본문 속으로 >

1. 우리는 누구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까? (3절)
2. 우리의 어떤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6절)
3. 우리 지체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어떤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요? (13절)
4. 결국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무엇 아래 있기 때문인가요? (14절)

SATURDAY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의”와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2. 담임목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과 권능을 주셔서, 귀한 영의 양식을 말씀으로 능력있게 전하고 주님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게 하소서.
3. 모든 리더십들에게 항상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 반석 위에 모두 한 마음으로 동역하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풍성한 섬김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SUNDAY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1. 세상 풍조에서 벗어나,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가득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2. 거짓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마음을 두

함께 기도

이창진 장로님: 무릎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안성실 권사님: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배상진 장로님: 교통사고로 등에 골절을 입으셔서 보호대 착용 중입니다.

김기봉 장로님: 현재 키모(chemotherapy) 치료 중입니다.

송명신 자매님: 계속 건강회복중입니다.

이소연 자매님 딸 엘라: 어릴적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앓고 있습니다. 발목과 고관절 대수술 이후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장길자: 권사님: 협착증으로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의 선하심을 내 안에 서도 점점 회복해 나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3.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로 주께 납작 엎드리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MONDAY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하소서

1. 오직 성경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께서 옳다 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2.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가 점점 맺히게 하소서.
3.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반면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하소서.

3. 세상과 아무런 마찰이 없이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THURSDAY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1.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소서.
2. ‘코로나19’을 지나가며, 각 나라와 민족들이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무릎꿇고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3.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흠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어디서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TUESDAY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부모인 내가 먼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소서.
2. 하나님만이 중심 되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되게 하소서.
3. 성경적 가정의 모범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며 공경하며 순응하게 하소서.

FRIDAY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소서

1.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2.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아 거룩한 계보를 이어서 교회와 민족과 맡겨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3. 흔들리는 세상 문화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당당하게 믿음의 뜻을 정하게 하소서.

<생활 속으로>

1. 주와 동행하는 인생은, '예수와 합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정체성을 아는 인생'으로, 우리 안에 옛 사람은 죽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접붙어, 오로지 주님의 은혜와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정체성으로 또 어떤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혹 잘못된 정체성으로 여전히 옛 사람이 죽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세요.

2. 주와 동행하는 인생은, '내 모든 것을 의의 도구로 주 앞에 제대로 드리는 인생'으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죄가 미워지고 싫어져 주께 부끄러운 줄 알면서, 말씀 거울로 늘 스스로를 비추고 다듬어, 의의 도구로 나를 주 앞에 드려야 합니다. 행여 아직도 죄가 밍지 않고 싫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것은 아닌지, 혹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의를 행하기 보다는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세요.

소망소식

예배를 섬기는 이들

4/2		4/9	
대표 기도	윤순화 장로	대표 기도	백형수 장로
교회 안내	김동한 집사	교회 안내	김일복 권사
설교 번역	김예람 자매	설교 번역	
애찬 담당	키르키즈스탄 구역	애찬 담당	1조 구역 / 케냐 (뒷정리)
교회 청소	케냐 구역 (4월)	교회 청소	케냐 구역 (4월)

향기로운 예물 3/26/2023

주일	\$1,085	구역선교	\$0	주일학교/유스	\$20
십일조	\$3,430	건축	\$0	예배부 키보드	\$831,15
감사	\$375	첫열매	\$149.40	소망학교 전시회	\$300
선교	\$0				
				현금총액	\$6,190.55

현금 외 수입금

Hope Café 수입금	\$30		
방송부-Refund	\$429.12		
생명의삶 구입비	\$15	합계	\$474.12
		입금총액	\$6,664.67

교회현금 KHPC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온라인 HopeSTL.org/online-donation

‘로마서 성경필사’

예전에 요한복음 성경필사 했던 그대로 이번에는 로마서를 필사해서 세상에 딱 한 권 밖에 없는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고 기간을 2월 첫째 주일부터 5월 마지막 주일까지 잡았습니다. 개인의 노트로 필사하셔도 되고, 교회에 필사노트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해요.

2023년 요람

일단 한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시고 외부에는 성도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성금요일 예배

4월7일(금) 8PM에 본당에서 성찬식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부활주일 연합예배

다음 주일(4월9일)은 부활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없으며 2부예배 11시에 주일학교와 유스 모두 함께 드립니다.

교우동정

+ 새로 등록된 교인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상열 (이상진) 성도님 가정 소희 Sophia (6살), 지희 Eleanor (3살)
 김희정 집사님 가정 - 리오, 원도

기도구역 청년부 - 오정훈 (김성은) 목사님 위해서

기도가정 송계자 집사님 가정 위해서

교회행사

2월 5일 (주)
 ~5월 28일 (주)
 ‘로마서 성경필사’

4월 7일 (금)
 성금요일 예배
 (8PM)
 성찬식

4월 9일 (주)
 부활주일

4월 18-23일
 소망학교
 사진과 그림 전시회